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위한 양국합심협력의 징표

「우정의 종」 타종사

1981년 1월 29일

「브래들리」시장,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시의원과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운데 한국국민과 미국국민들간의 우정의 상징인 「우정의 종」을 타종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종은 지난 1976년 미국이 뜻 깊은 독립 200주년을 맞이했을 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 미국 국민에 대한 깊은 우정을 상징하기 위해 기증한 것입니다.

나는 이 종이 땅국의 한으로 가득찼던 시절 한국독립투사들의 거점이었고, 오늘날 우리 재미동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이곳 「로스앤젤레스」근교에 자리를 잡은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브래들리」시장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하고 자상한 보살핌으로 「우정의 종」이 그 늠름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데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정의 종」은 단순한 우정의 상징을 넘어, 양국 국민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합심협력하자는 굳은 다짐의 징표입니다. 내가 귀국 「레이건」대통령의 초청으로 귀국을 방문하게 된 것도 이러한 다짐들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이 종소리가 양국국민의 우의, 세계의 평화, 인류의 행복,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시의 무궁한 발전을 축복하는 우렁찬 합창이 되어 온 누리에 퍼지게 되기를 우리 모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